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Vol. 11

판교



2026

PANGYO

창업진흥원 KOREA START UP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STARTUP ECOSYSTEM REPORT

STARTUP ECOSYSTEM REPORT
2026 PANGYO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Vol. 11

판교

연구기관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협력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더브이씨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는 지역 창업생태계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7개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도시 단위로 분석하여 발간합니다.

* 2026년 8월 : 판교 / 9월 : 천안 / 10월 : 세종 / 11월 : 부산 / 12월 : 창원
* 2027년 1월 : 경산, 나주

**본 리포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공시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시에 누락되거나 오기된 정보는 정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처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발행일 2026년 8월
홈페이지 https://ccei.creativekorea.or.kr/
디자인 디자인집

**본 리포트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03 숫자로 보는 판교 창업생태계

05 판교 창업생태계 현황

1세대 벤처기업부터 딥테크 스타트업까지, 기술혁신의 세대가 모이는 판교 창업생태계

판교 창업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이해관계자

세계가 찾아오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혁신 허브 ‘판교’

창업자가 바라본 판교 창업생태계

11 판교 창업생태계 특화산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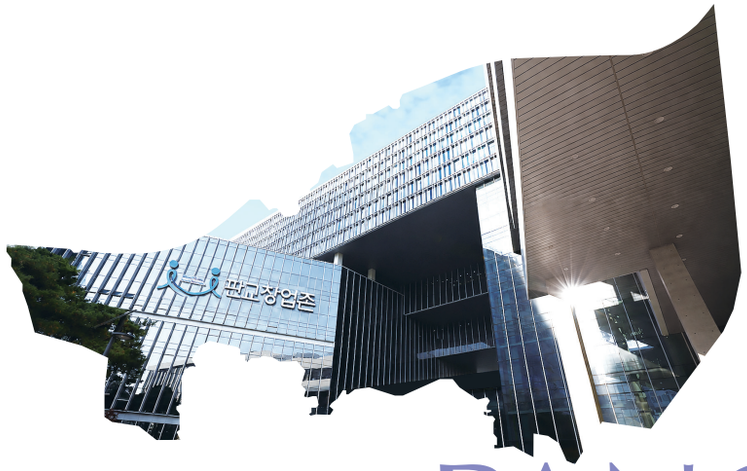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판교 창업생태계 특화산업

: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후테크

14 판교 창업생태계 진단

판교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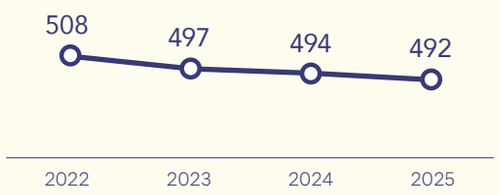
판교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기획하다



2026
PANG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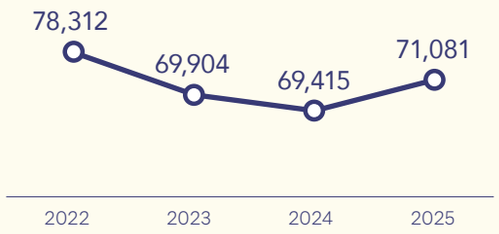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판교 창업생태계

경제활동 인구(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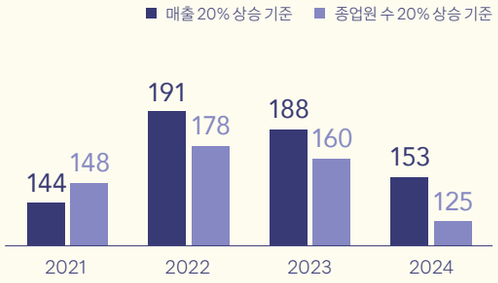
* 성남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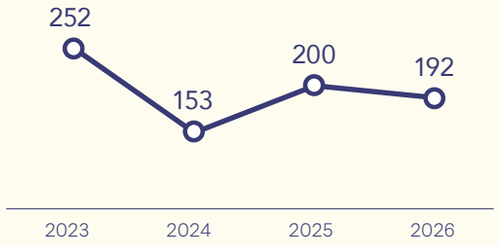
* 경기 소재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창업기업동향

고성장기업 수(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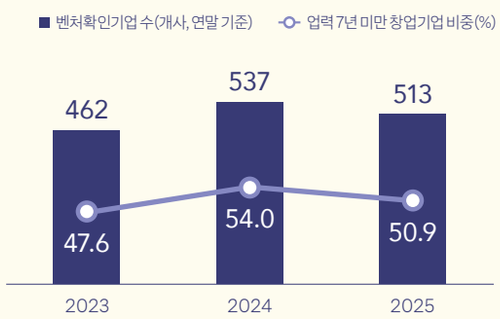
* 성남 소재 기준
자료: STEPI(2025), The scaleup Landscape in Korea

창업지원 예산(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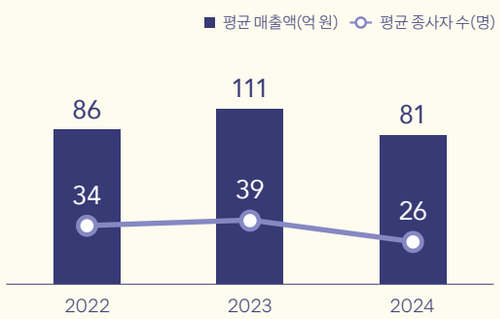
* 경기 소재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벤처기업 확인 수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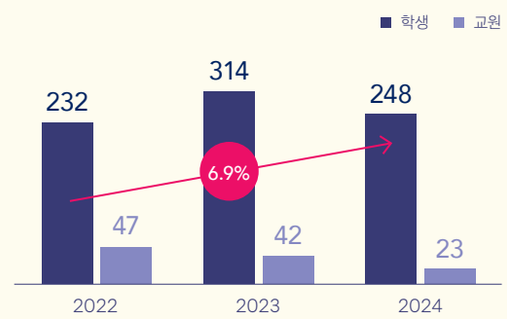
* 판교 소재 기준
자료: 벤처기업확인기관 내부 자료(2026.6.15 기준)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 및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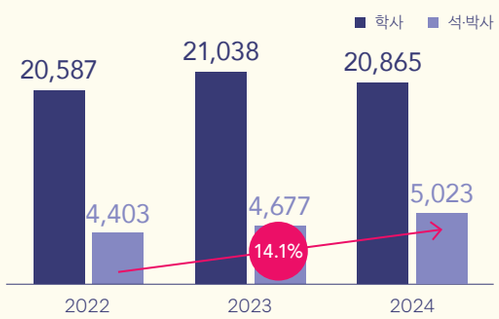
* 판교 소재 기준
자료: 벤처기업확인기관 내부 자료(2026.6.15 기준)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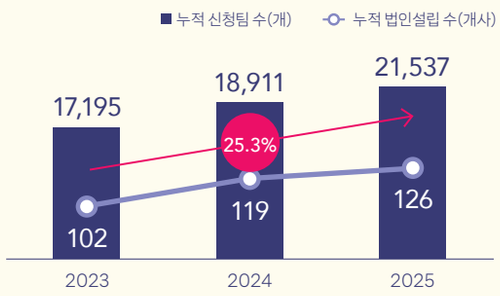
* 경기 소재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서비스

이공계 인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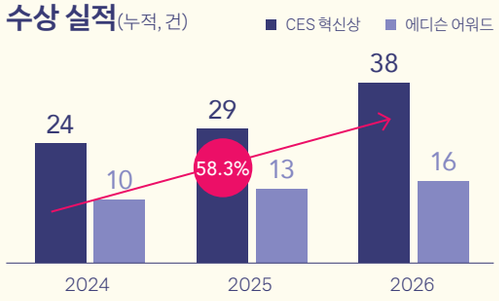
* 경기 소재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서비스

KSGC 신청팀과 판교 내 법인설립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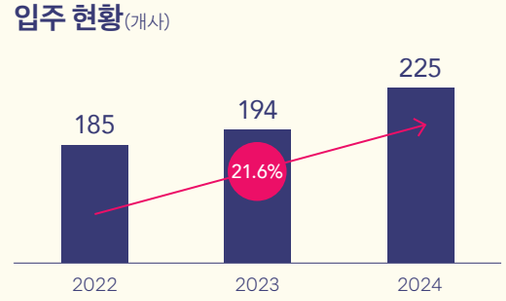
* K-Startup Grand Challenge(KSGC)는 해외 창업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정착과 사업 성장을 돕는 정부 프로그램
자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26.7 기준)

경기창경 보육 스타트업(판교 소재) 수상 실적(누적,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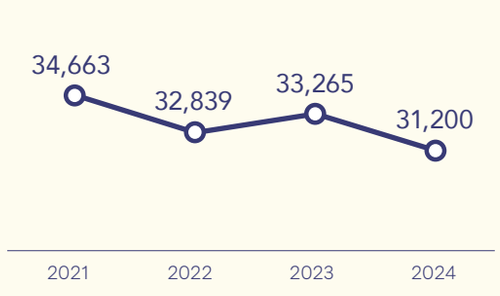
* 2022년부터 누적된 수치로 198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기술혁신상
자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26.7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대기업·중견기업 입주 현황(개사)



*본사, 연구소, 지사 등을 포함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5.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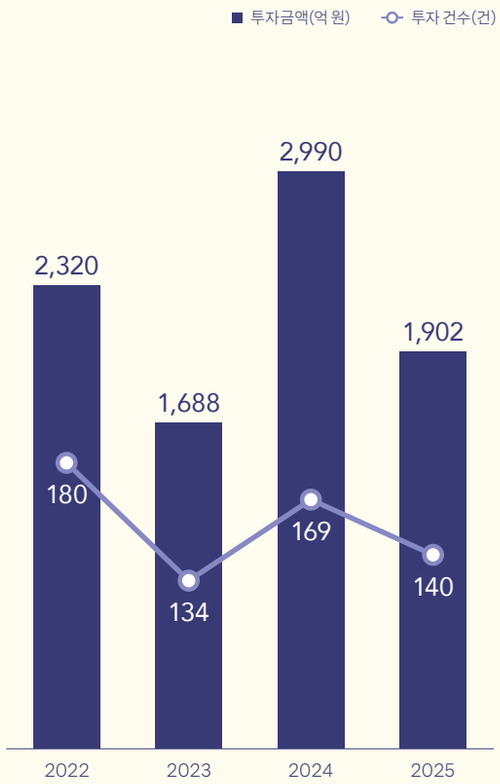
특허 등록 수(건)



* 경기 소재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각 연도), 지식재산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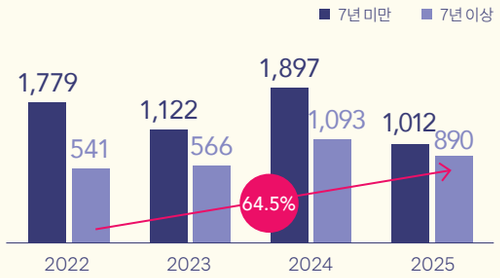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판교 창업생태계

벤처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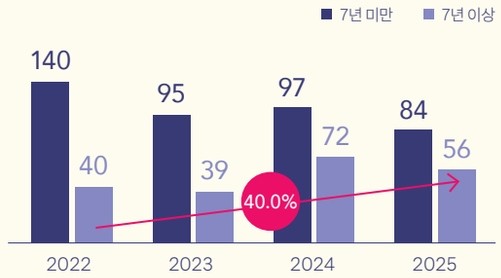
*판교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금액 및 건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력별 벤처투자 금액(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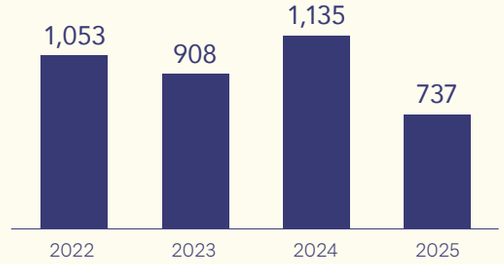
*판교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금액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력별 벤처투자 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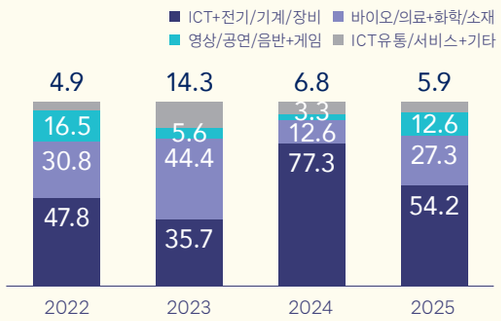
*판교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건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모태출자펀드 투자금액(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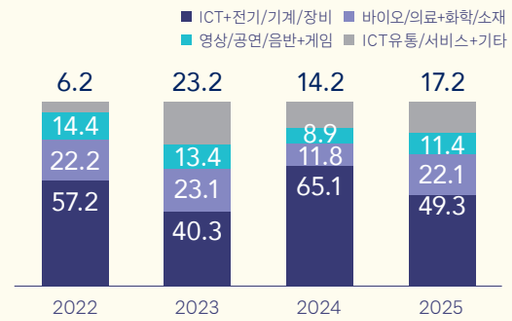
*판교 소재 기업에 투자된 모태출자펀드 금액(판교 기준)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종별 벤처투자 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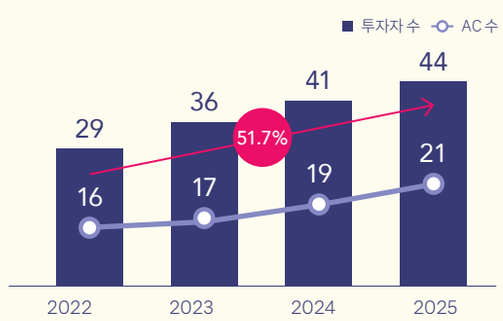
*판교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금액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종별 벤처투자 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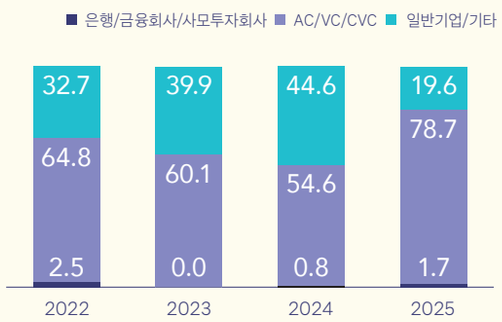
*판교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건수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판교 투자사 현황(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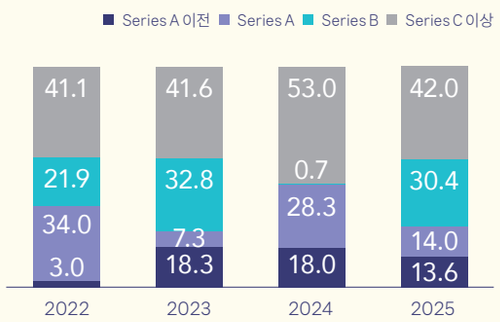
*투자자는 판교 소재 기준, AC는 성남 소재 기준
자료: TheVC(투자자 수), 창업진흥원(AC)

투자자 유형별 투자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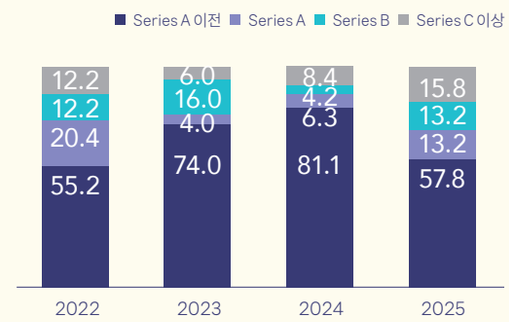
*판교 소재 투자자 기준
자료: (주)더브이씨

라운드별 투자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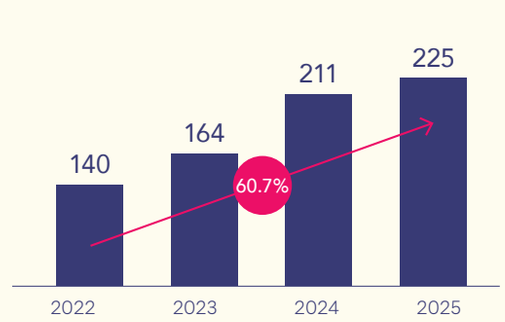
*판교 소재 기업 기준
자료: (주)더브이씨

라운드별 투자 건수 비중(%)



*판교 소재 기업 기준
자료: (주)더브이씨

판교 TIPS 선정기업 현황(누적, 개사)



*선정 당시 소재지가 경기 성남시인 경우
자료: jointips.or.kr

1세대 벤처기업부터 딥테크 스타트업까지, 기술혁신의 세대가 모이는 판교 창업생태계

1세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대기업 R&D가 집적된 판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는 *1세대 벤처기업*이 쌓아온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국내 혁신 클러스터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1995년 판교 신도시 부지에 벤처기업을 입주시켜서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2001년 약 66만㎡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확정되었으며, 2003년 시행주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카카오·안랩·한글과컴퓨터·NHN 등 *국내 1세대 IT 벤처기업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Next 판교'라는 이름으로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논의되었으며, 2025년에 완공되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초기부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수정구 시흥동 일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주체를 맡았으며, LH기업지원허브(판교창업존) 등 *공공 주도의 인프라에 창업기업이 입주*하였다. 또한 수정구 금토동 일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주체를 맡아 *유니콘 기업(우아한형제들, 놀유니버스), 대기업(KT), 중견기업(이녹스, 아이티센 등)*이 앵커로 참여하는 민간주도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었다. 이곳은 앵커기업 위주의 *벤처타운*, 창업기업 위주의 *혁신타운*으로 구성되었다. 즉 *공공의 입지공급정책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에 앵커기업의 성장 노하우가 결합되어 창업기업에 전달되는 공간*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판교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단순 사업장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조직을 이전·신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판교연구소, HD현대 글로벌 R&D센터, 한화판교미래기술연구소*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연구개발 직군의 판교 선호도가 높아 현재 근무하는 인력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채용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기능을 판교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판교는 생산·영업 거점을 넘어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판교가 단순히 "기업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고급 연구 인력과 기술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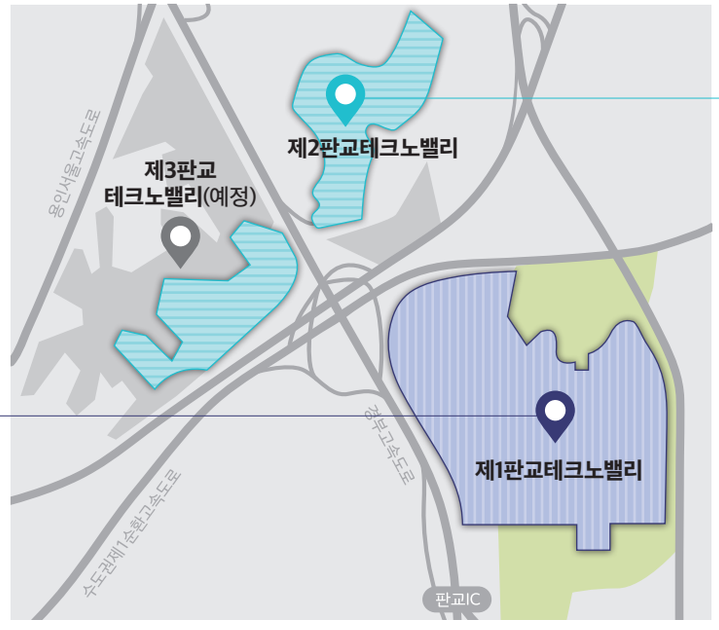
판교테크노밸리 현황

대·중견기업
225개사

연구소 운영 기업
(현대자동차 판교연구소 등)
727개사

* 2024년 기준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5)

제1판교테크노밸리	
대기업	삼성중공업, 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케미칼, 넥슨, NHN, 엔씨소프트, 카카오
대기업 연구소	현대자동차 판교연구소, HD현대 글로벌 R&D센터, 한화판교미래기술연구소
중견기업	웹젠, 안랩, 네오위즈, 다산네트웍스, 쏠리드, 한컴
창업인프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코리아바이오파크, 판교글로벌R&D센터
연구기관	ETRI수도권연구본부, 성균관대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협회 및 단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연구조합, 한국팹리스산업협회
AC/VC	인포뱅크(iAccel), 카카오인베스트먼트/카카오벤처스



제2판교테크노밸리	
대기업	만도, 다우기술, KT, LIG넥스원 2판교하우스
중견기업	텔레칩스, 우아한형제들, 놀유니버스, PSK, 솔브레인, 이녹스
창업인프라	판교창업존, 경기기업성장센터, 글로벌비즈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배민스타트업스퀘어, 판교이노베이션랩,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연구기관	KETI지능정보연구본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미래모빌리티센터)
협회 및 단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벤처기업협회
AC/VC	동문파트너스, 비디씨액셀러레이터, 쏠리드엑스

판교 창업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이해관계자

경기도는 판교 창업생태계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또한 기업 발굴·보육·투자·멘토링 등 창업기업 지원 전반을 수행하며 판교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판교 신도시 사업을 총괄한 주체로, 사업 성공에는 경기도가 판교의 ***개발 목표***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설정하고 중심을 잡은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2023년에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약 3,000개 이상의 창업공간을 공급하는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기준 약 3,356개의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제1판교테크노밸리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이다. 판교 내 창업지원 인프라로는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판교 창업생태계에서 경과원의 핵심 기능은 투자 펀드(***'경기도 G-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누적 조성금액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는, 탄소중립, 창업기업, 미래성장 산업(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IT산업이지만, 그중에서도 ***게임 산업***은 판교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이다. 게임 산업이 넓은 의미의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된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업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판교 내에는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코리아랩,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등 3개의 지원시설이 있으며,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사업(G-유니콘 패스)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창경)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이다. 도내 유망 ***딥테크 기업을 직접 발굴·투자***하고 있으며 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TIPS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2판교테크노밸리에서 ***판교창업존*** 및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창경은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사다리***를 완성하여 창업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액셀러레이팅과 투자를 공백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이전, 성남시의 성장동력은 1974년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였다. 성남시는 중소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제조업 기업의 AX를 통해 4차 산업 특별도시를 추진 중이다.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판교 창업생태계에서 성남산업진흥원의 역할 중 하나는 ***벤처펀드 운영***이다. 2002년부터 성남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판교유니콘펀드***라는 이름으로 19호 펀드를 결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창업센터,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한다.

GDIN

2013년 본투글로벌센터에서 출발한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이하 GDIN)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GDIN의 강점은 국내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 협력해 온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이다.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코칭 프로그램***(PMF, Boot-X)과 글로벌 기업 또는 ***투자사와의 협력 프로그램***(Tech Matching, Joint Venture) 등이 있으며,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내에 입주공간도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962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다.

세계가 찾아오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혁신 허브 '판교'

현재 판교는 국내 대표 IT 기업과 연구인력, 투자사 등이 모여있으며, 혁신클러스터로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판교의 모습을 파악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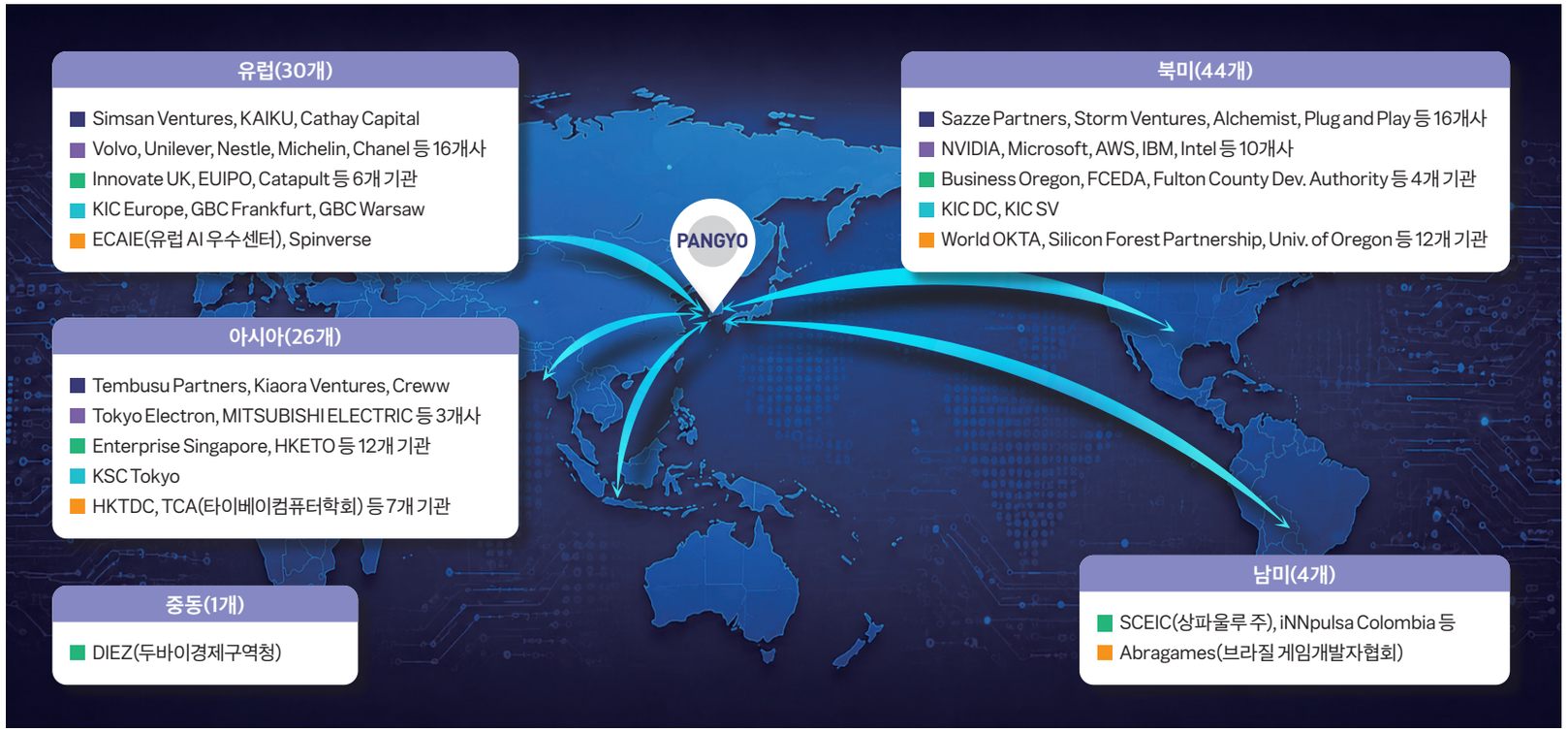
GLOBAL IN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를 넘어 해외 정부·기업·투자기관이 대한민국의 혁신생태계를 경험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혁신거점이다. 해외 주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산업계 대표단의 방문이 이어지며, 판교는 대한민국의 기술창업과 혁신기업을 세계에 보여주는 *글로벌 쇼케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에서 판교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판교에 자리 잡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만나기 위해서다. 해외 구매자(바이어)나 투자사에게 판교는 투자처 검토 과정에서 대기업과 우수한 창업기업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외국인 창업기업 유치 프로그램(*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을 통하여 매년 전 세계 우수 스타트업 40~50개가 한국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판교로 모이고 있다.

■ 해외 VC·AC ■ 글로벌 대기업 ■ 정부기관 ■ 해외거점 ■ 기타(대학·협회 등)



GLOBAL CONNECT

판교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히 해외에서 찾아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등 판교의 주요 혁신기관들은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글로벌 기업, VC· AC, 대학 및 혁신기관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각 기관이 축적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가 판교에서 교차하며 *해외 혁신 주체*와 *국내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Around X 프로그램'을 통해 *Volvo Group, Unilever, Microsoft, Oracle, AWS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연결하며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고 있다.

1세대 벤처가 축적한 자본과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를 해외 유수 기업 및 스타트업과 연결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것이 판교 창업생태계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실수요 발굴 → 맞춤형 AC → 협약 · PoC)

VOLVO	매칭 51건	NDA 1건	PoC 2건
Unilever	매칭 39건	LOI 2건	
Radial	매칭 43건	PoC 2건	

** NDA : Non-disclosure agreement, LOI : Letter of Intent, PoC : Proof of Concept*
*** 2025~2026년 기준*

글로벌 투자(2023~2026년 해외VC와 경기창경 공동투자 현황)

투자기업 8개사(10건) | 투자금액 117억 원

글로벌 인바운드(2016~2025년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누적성과)

최대 33개국 489팀 선정 | 법인 설립 24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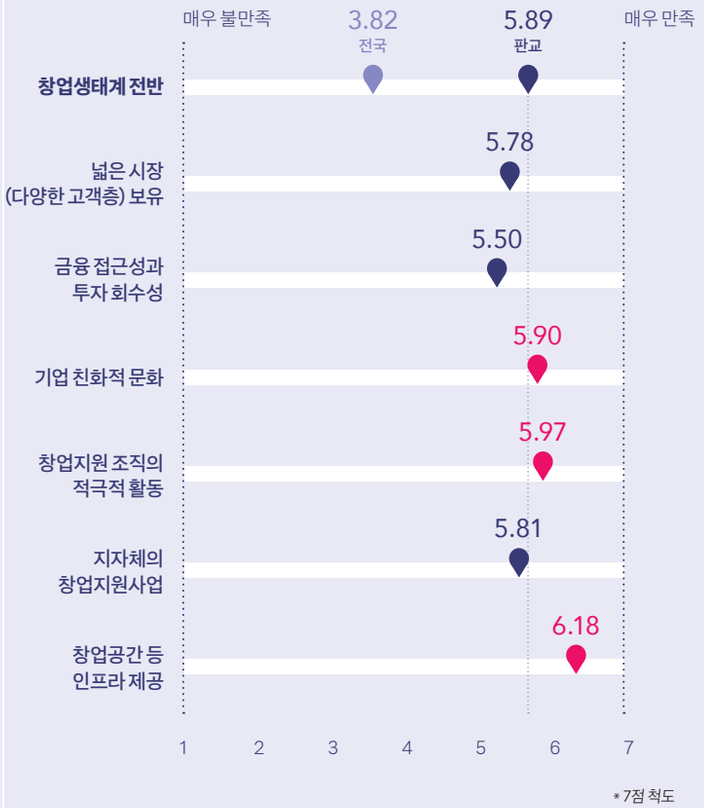
매출액 740억 원 | 신규고용 407명 | 투자유치 2,426억 원

창업자가 바라본 판교 창업생태계

판교에 본사가 있거나 주 활동지역이 판교인 창업기업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판교 창업생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6년 7월)

판교 창업생태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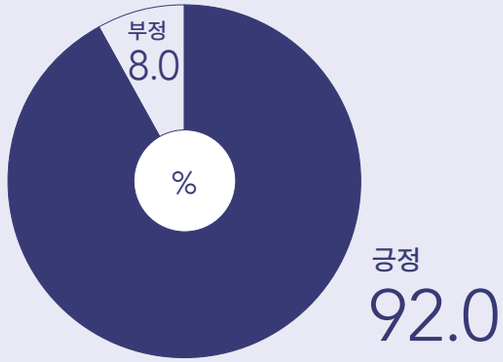
판교 내 창업기업들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창업공간 등 인프라 제공***(6.18점), ***창업지원조직의 적극적 활동***(5.97점), ***기업 친화적 문화***(5.90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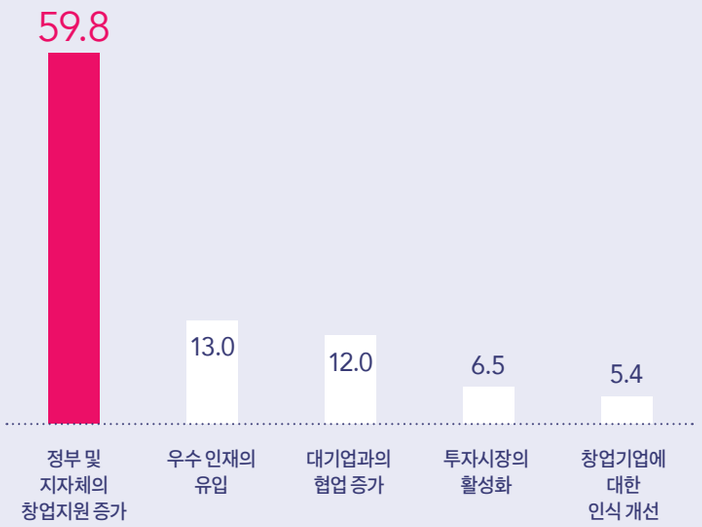
* 전국 결과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2025)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 분위기 평가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에 주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망 및 이유

응답자의 ***92.0%***는 전년 대비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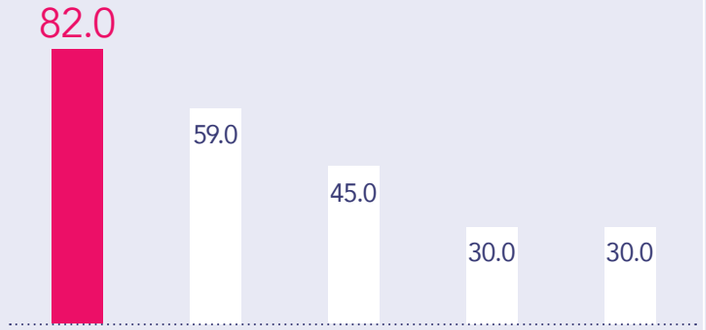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92명) 중 59.8%는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증가***를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망 이유로 선택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한 창업생태계 기관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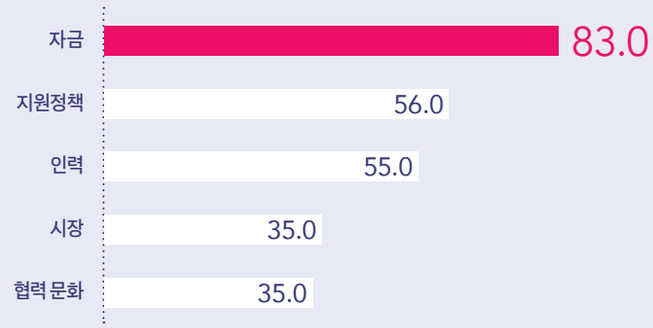
창업지원기관(82.0%)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으며, 그다음으로 투자사(59.0%), 동종업계 스타트업(45.0%) 순으로 나타났다.



* VC(Venture Capital), AC(Accelerator),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1+2+3순위)

판교 지역 발전을 위한 요인으로 ***자금***(83.0%)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원 정책(56.0%), 인력(55.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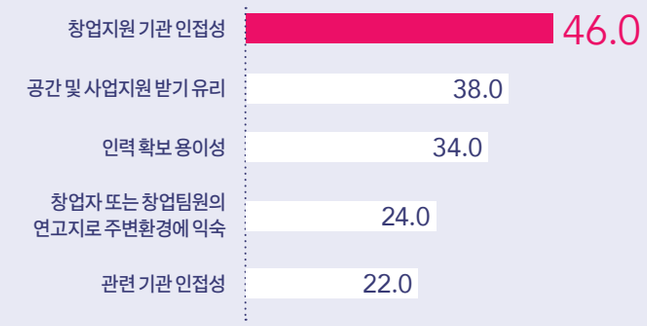


창업자가 바라본 판교 창업생태계

판교에 본사가 있거나 주 활동지역이 판교인 창업기업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판교 창업생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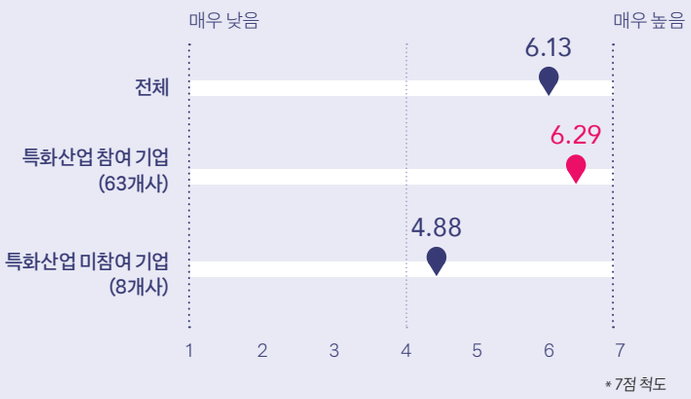
판교 지역 소재의 장점(1+2순위)

창업지원기관 인접성(46.0%), 공간 및 사업지원 수혜 유리(38.0%), 인력확보 용이성(34.0%)이 주요 장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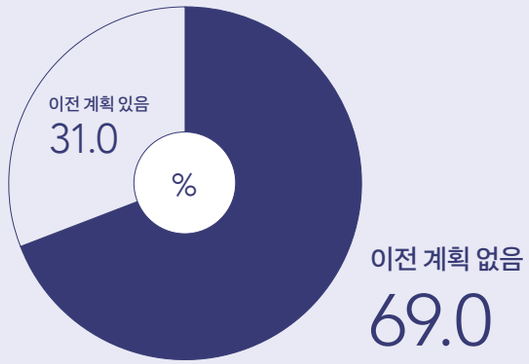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수준

판교 특화산업(AI, 반도체, 기후테크)을 인지하는 응답자들(71명)은 판교의 *특화산업이 전국 대비 경쟁력이 높다*(6.13점)고 응답하였다. 특히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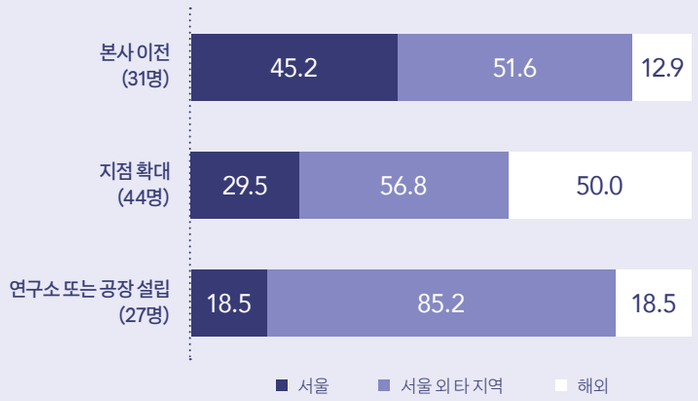


타 지역으로 이전·확장 계획

타 지역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없는 경우*는 69.0%, 있는 경우는 3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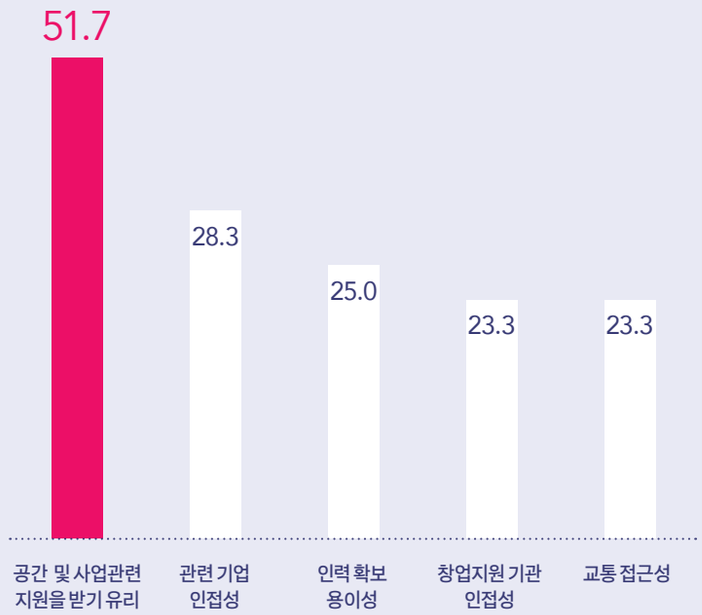


이전 유형에 따라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사 이전, 연구소·공장 설립, 지점 확대 모두 *서울 외 타 지역*을 선호하였다.



타 지역으로 이전·확장 이유(1+2순위)

*공간 및 사업지원을 받기 유리*해서 이전·확장을 고려하는 경우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기업 인접성(28.3%), 인력 확보 용이성(25.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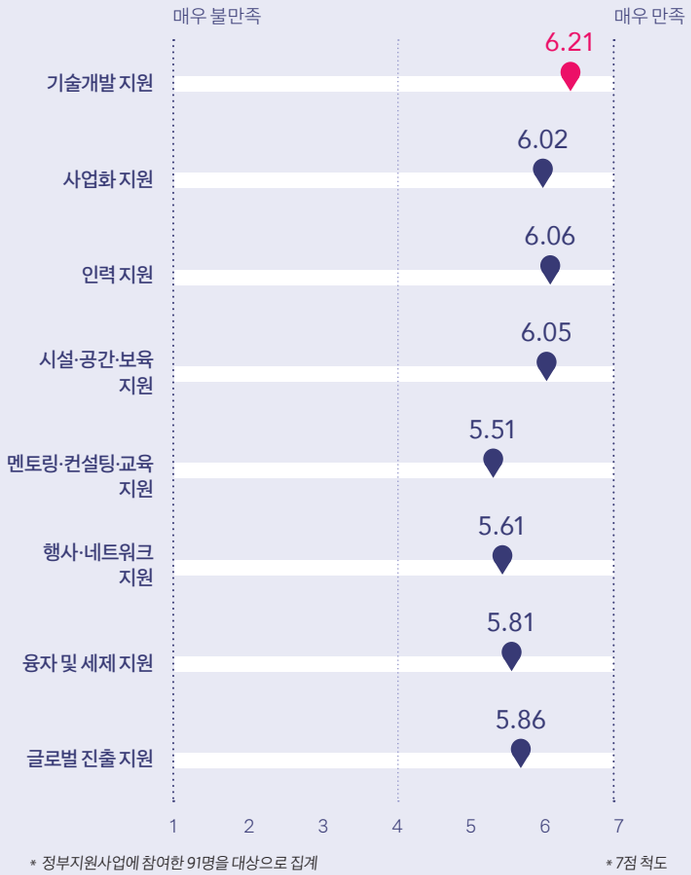


창업자가 바라본 판교 창업생태계

판교에 본사가 있거나 주 활동지역이 판교인 창업기업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판교 창업생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6년 7월)

정부 지원사업 만족도

정부 지원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6.21점), 인력 지원(6.06점), 시설·공간·보육 지원(6.05점)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91명을 대상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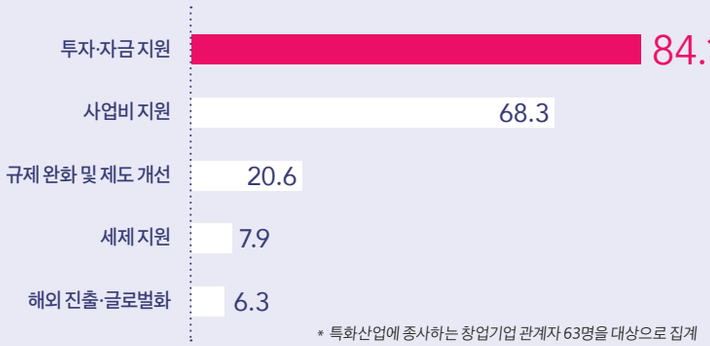
* 7점 척도

정부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1+2순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은 ***사업화 지원***(76.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기술개발 지원, 융자 및 세제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1+2순위)

투자·자금 지원(84.1%), 사업비 지원(68.3%)에 대한 정부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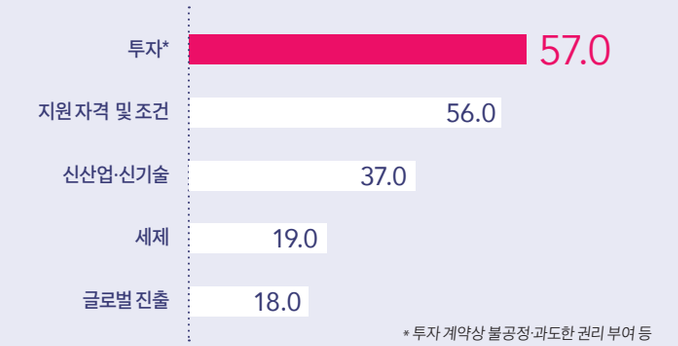
*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업기업 관계자 63명을 대상으로 집계

기업 운영 애로사항(1+2순위)

기업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영업 및 마케팅***(62.0%), R&D 및 시제품 제작(39.0%), 인사·조직 관리(30.0%)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규제 완화 필요 분야(1+2순위)

투자(57.0%), 지원 자격 및 조건(56.0%)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투자 계약상 불공정·과도한 권리 부여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판교 창업생태계 특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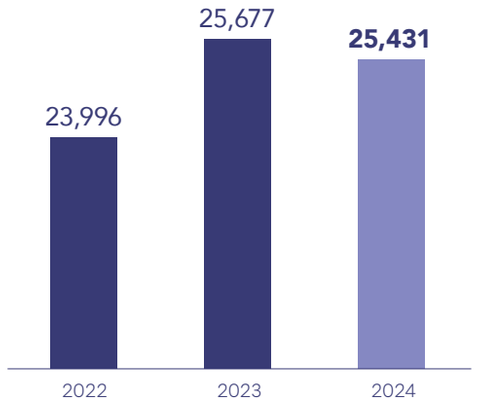
인공지능(AI)

판교 인공지능(AI) 산업 특징

인공지능(AI)은 모든 기업의 근원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단하게는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한편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자체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판교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판교에는 IT, BT 등 AI와 결합했을 때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그 어느 지역보다 큰 영향***을 준다. 특히 ***1세대 IT 벤처기업***의 경우 ***비즈니스모델이 고도화***되어서 ***성장의 임계점***에 다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임계점을 AI 활용으로 돌파하고자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모델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판교 기업의 AI 도입 수요와 업무 프로세스·비즈니스 모델 효율화를 지원하는 ***AI 솔루션 개발 창업기업의 실증 수요***가 맞물릴 수 있다.

또한 판교의 강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 인력이 많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내 연구인력은 25,431명(30.5%)이며, 이는 창업기업이 ***연구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인력의 특성상, ***AI 관련 연구개발 현황이나 해외 빅테크의 기술경쟁 구도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 판교이기도 하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연구인력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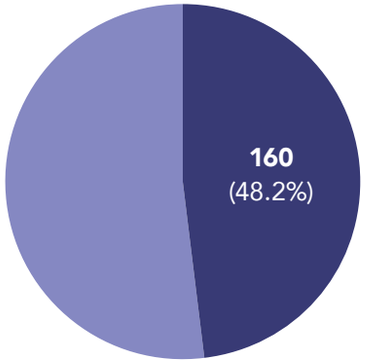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3, 2024, 2025)

판교, 경기 AI혁신클러스터의 거점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AI 기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5년 5월 경기도는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발표하며 경기도 내 6개 AI 거점지역(판교, 성남하이테크밸리, 시흥, 부천, 하남, 의정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거점 지역에서는 창업공간, 교육,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창업캠퍼스 조성, 일반산업단지 내 제조업 기업의 AI 전환 지원, 빅테크 및 선도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AI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 중 판교는 ***6개 네트워크의 구심점(허브)*** 역할을 맡는다. 판교를 중심으로 6개 지역별 거점 공간과 프로그램을 광역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AI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2026년 4월에는 6개 거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여 ***각 지역의 주력산업 기업에 AI를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판교에서 개발된 AI 솔루션은 경기도 내 타 지역의 수요기업이 보유한 ***현장 지식과 결합하여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경기도 전체의 AI 대전환(AX)***을 이끌 것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AI 창업기업 현황



** 지원 당시 주소 기준으로 판교 소재인 기업만 계상*
자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2015-2026)

Mini Interview



아타드 | **박영선 대표이사**

아타드 (2023년 1월 설립)

AI 기반 클라우드 자율운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 학습·추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묶어 대여해 주는 가상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시드팁스, TIPS, DIPS 1000+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KB유니콘클럽 사업에 선정, 판교 창업존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았다.
최근 Series A 투자를 마무리하였으며, 누적 투자금액은 146억 원이다.

"높은 AI 도입 수요로 인해 제품을 실증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AI 산업에서 판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 검증-고객 확보-투자 유치의 성장 사이클을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AI는 수요처의 데이터가 현장에 적용되어야 고도화되는 산업인데, 판교에는 AI 도입 수요가 큰 IT 기업이 많아서 제품을 고도화시키기 좋은 환경이다. 자연스럽게 제품 운용 실적도 빠르게 쌓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에도 유리하다.

향후 판교의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AI 인프라 지원이다. AI 학습과 추론에 활용되는 GPU를 창업기업이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GPU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크레딧 등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판교의 AI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제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실무를 알려 주고,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하거나 투자자와 연결해 주는 글로벌 브리지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한다.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판교 창업생태계 특화산업

반도체

판교 반도체 산업의 특징

경기도는 ***전국 반도체 사업체의 48.8%, 종사자의 66.7%***가 집적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수원을 본사로 하는 삼성전자가 기흥·화성·평택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천을 본사로 하는 SK하이닉스는 용인에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다. 즉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2개사가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와 반대로 판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판교는 ***AI반도체 설계 및 팹리스***에 특화하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4년부터 성남시 및 판교에 팹리스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산업의 역량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성과 또한 나오고 있는데, 성남에 위치한 AI 반도체 개발기업 리벨리온이 2026년 3월 말 Pre-IPO 이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하며 창업 6년 만에 약 3조 4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는 국내 창업생태계 전체에서도 독보적인 성과이며,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성장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교의 인프라를 보면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지능정보연구본부***가 있다. 이곳에서는 시스템반도체와 ICT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국방, 우주, 항공, 자율주행,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공간 중 15%가 반도체 기업 입주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경기기업성장센터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반도체산업의 완성

현재 경기도는 ***평택***, ***성남(판교)***, ***수원***을 거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수원은 R&D, 평택은 메모리반도체 생산 및 교육에 특화된 거점지역이라면 판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거점지역***이다. 그 중심에는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클러스터***로 활용될 예정이며, 전체 면적 58만㎡ 중 약 3만㎡를 반도체 전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KETI,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 시스템반도체 유관기관 및 에이직랜드·켐트로닉스 등 국내 팹리스 기업도 참여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향후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수요기업의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완성해서 각각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3대 거점



Mini Interview



유니컨 | **김영동 대표이사**

유니컨 (2022년 5월 설립)

팹리스 기업으로, 기존의 케이블과 커넥터를 초고속 무선통신으로 대체하는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근거리 통신을 무선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로봇, 전기차, 스마트폰 등 회전·이동하는 장치에서 고속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비창업패키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Series B 투자를 유치하였고,
총 투자금은 330억 원이다.

"판교의 설계인력, 수요기업, 투자, 기술창업의 집적도를 높여서 국내외 파운드리·OSAT 및 글로벌 수요 창출 필요"

판교는 팹리스 기업에게 입지적으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은 제조공장 운영보다 반도체 설계 인력, 고객사와의 협업, 투자 네트워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력, 협력기업, 지원기관이 지리적으로 가깝게 모여있는 판교에서 팹리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향후에도 판교가 팹리스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입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판교의 팹리스 기업과 실제 반도체 수요기업을 연결하고 고객사가 신기술을 시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고객사의 피드백을 반영한 신제품이 양산되고, 그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판교 창업생태계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판교 창업생태계 특화산업

기후테크

기후테크,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 투자

기후테크는 단순히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및 산업정책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는 청정경쟁법(CCA)과 같은 탄소국경조정 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앞으로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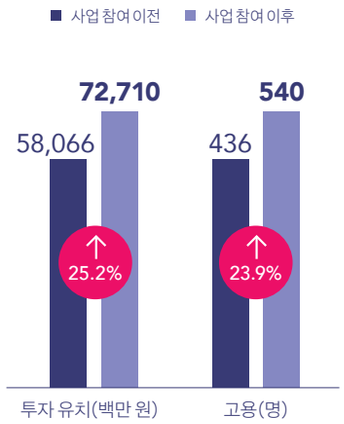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및 RE100 목표 달성*** 등으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23년 6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여기에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 원을 투입하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다만 현 시점의 기후테크 창업기업 투자 환경은 창업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인다.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후테크 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는 ***사회적 영향력 위주의 임팩트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임팩트 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최근 투자시장에서 Series B 이상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초기 단계 투자는 감소하는 경향 역시 이제 막 시장 형성 단계인 기후테크 기업에 불리하다. 향후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기후테크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심을 잡아줄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테크 산업에서 판교의 경쟁력

기후테크 산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2023년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주요 과제로 ***경기도형 기후테크 창업기업*** 육성·발굴 및 탄소중립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중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4년부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까지 총 100개의 기후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선정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후테크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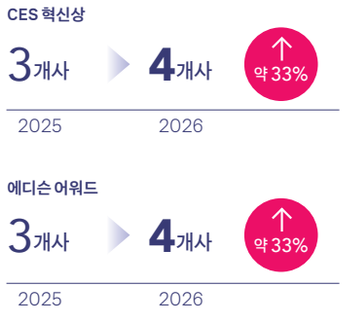
기후테크 산업에서 판교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에 집적된 ***IT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역량***은 에너지 효율화, 탄소 배출 측정, 스마트그리드 등 ***기후테크 영역과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 시점 기후테크 기업 중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한 기업은 대부분 데이터 처리와 공정을 자동화하여서 비용을 낮추고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기후테크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판교에 많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에는 정부 정책과 비즈니스모델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솔루션 실증·고객 확보를 위해 전통 제조기업 또는 대기업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판교는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쉬우며,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인근의 전통 제조기업 및 대기업과의 협업도 기대해볼 수 있는 최상의 위치이다.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주요성과



** 해당 지표는 사업신청시 기준, 전년도 데이터로 작성*
자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2026)

경기도 기후테크 육성사업 참여기업 수상실적



자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2026)

Mini Interview



아라메소재 | **정창윤 대표이사**

아라메소재 (2023년 4월 설립)

아라메소재는 해조류 기반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플라스틱 대체용 생분해성 배리어 코팅제 및 가식성 코팅제가 있다.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의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Unilever, Amcor 등 해외 식품기업 및 패키징기업과 협력을 진행 중이다.

"전국의 지자체 중 기후테크 지원을 가장 잘하는 곳"

기후테크의 경우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 중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가장 잘하는 곳이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본다. 특히 대기업 담당자와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주는 것이 크다. 또한 기후테크 관련 수요가 있는 고객사가 안양, 남양주, 성남 등 지근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라메소재도 기후테크 분야에서 경기창경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판교창업존에 입주해 있으며 기후테크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었다. 또한 경기창경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해서 해외 대기업을 만날 수 있었다. 창업기업은 대기업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누굴 만나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창경의 도움으로 이 부분을 해결한 것이 크다.

기후테크 기업이 추구하는 RE100,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방향성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전 세계의 기후테크 기술을 선점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와 경기창경은 기후테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기후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해왔기에 이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판교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허브, 판교 창업생태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김원경 대표이사**



판교 창업생태계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설계*하고 *판교의 혁신자원을 연결하는 벤처 빌더*이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보육과 투자를 연계하고, 대·중견기업의 실제 사업수요와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해 PoC부터 사업화·투자까지 이어지는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초기부터 KT와 협업하며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발굴·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PoC에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업화와 전략투자까지 연계하는 *Post-OI*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KT, INNOX 등 *131개 대·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판교에서 글로벌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판교에는 벤처생태계 태동기부터 축적된 *기업·기술·자본·인재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집적*되어 있다. 향후 판교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스타트업이 판교로 들어오는 Inbound*와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로 나가는 Outbound*가 함께 작동하는 *글로벌 혁신생태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성공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VC와 공동펀드·클럽딜 등을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판교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는?

판교의 다음 단계는 *1세대 벤처가 축적한 기술·자본·글로벌 네트워크를 새로운 스타트업과 연결*하고, 이를 다시 *세계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판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창경도 기업·스타트업·투자자·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전략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판교의 경쟁력은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연결의 밀도에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김현곤 원장**



판교 창업생태계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의 역할은?

판교는 창업기업·대기업·투자자·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원이 유기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경과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발굴, 보육, 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과원은 *판교의 성공경험과 혁신자원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판교를 중심으로 도내 창업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창업생태계*로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경기도 전체 창업생태계에서 판교의 역할은?

판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창업 클러스터를 넘어, 축적된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기도 내 반도체·AI·바이오·기후테크 등 다양한 산업거점에 판교의 투자자·대기업·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판교 집중’에서 ‘판교 연결’*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판교의 전략산업(AI, 반도체, 기후테크) 창업기업 육성방안은?

AI 분야는 우수한 인재와 기술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 실증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반도체 분야는 *팹리스 기업이 수요기업*과 만나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테크 분야는 *공공과 민간의 실증수요*를 발굴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 창업생태계의 경쟁력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판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네트워크의 밀도’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창업가와 연구개발 인재,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만나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이 따라오기 어려운 강점이다. 이를 유지하려면 우수 인재가 계속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성장기업이 공간 부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후속 성장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판교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1세대 벤처기업이 후배들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다산네트웍스 | **남민우 회장**

판교 창업생태계의 강점은?

우선 구성원이 젊고, *창업존*이나 *스타트업 캠퍼스*와 같이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다. 즉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슷한 업종, 비슷한 연령대의 창업가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 모여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생태계 안에서 교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창업에 대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판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현재 판교 창업생태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과거 테헤란로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이 판교 생태계에서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판교는 *창업기업이 성공한 벤처 모델을 보면서 성장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판교의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창업가 출신 VC*가 많아져야 한다. 미국의 VC를 보면 대부분 창업가 출신이며, 한 번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면 후속투자나 엑시트 과정을 같은 벤처 창업자의 마인드로 꾸준히 지켜봐 주는 문화가 있다. 우리 창업생태계에도 필요한 문화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순환의 생태계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힘을 믿고 밀어주는 제도와 시스템*이 판교에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향후 판교 창업생태계의 전망은?

공공 주도의 조직적인 창업가 네트워킹 행사가 필요하다. 판교의 특징은 *1세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인데, 실리콘밸리처럼 생태계 안에서 창업자-투자자-지원기관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후배 기업인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개별 멘토링을 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창경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지만,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 창업가 모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규모 있는 행사를 추진하면 어떨까 싶다. 창업기업이나 투자자가 네트워킹 행사 참여를 위하여 판교를 찾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판교의 우수한 창업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초기투자 펀드가 필요한 시점”



인포뱅크(iAccel) | **홍종철 대표**

1세대 벤처기업이 판교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판교의 1세대 벤처들이 대부분 중견기업이다. 예전에는 대기업의 CVC에서 주로 창업기업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중견기업이 AC나 VC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다. 인포뱅크(iAccel)도 약 12년간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포트폴리오는 약 370개사, 누적투자금액은 약 1,200억 원이다.

그 외에 *1세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실증(PoC)*이 활발한 것도 장점이다. 대기업의 PoC는 한정적이면서 경쟁도 심한 반면 중견기업은 지금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성사율이 높다. 이처럼 투자나 PoC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판교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은?

강남과 비교했을 때도 뒤처지지 않는 곳으로 본다. IT, 바이오, 콘텐츠 분야의 대기업이 많고 이들과 협업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 기업도 많으며 투자 인프라도 좋다. 또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해외 바이어나 투자사가 적어도 판교까지는 방문을 한다. 국내 대기업과 더불어 좋은 창업기업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 자체가 경쟁력이다.

현재 판교 창업생태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기기업(Series A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펀드*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벤처투자 통계를 보면 전체 투자금은 늘어나는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안정적인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속되면 초기기업이 버틸 수 없고 결국 투자 대상이 될 기업이 없어질 것이다. 초기기업을 *Series A까지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투자펀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판교와 같이 좋은 창업팀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판교 창업기업이 갖는 네트워킹의 이점은?

판교에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또는 IR 행사*가 많다. 경기창경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해도 아주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판교의 창업기업이 다른 지역의 창업기업에 비해서는 혜택이 크다. 투자사 또한 강남에 있더라도 판교까지 참석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는 없다. 향후에도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 젊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네트워킹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려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판교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 판교 창업생태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박신옥 과장**



판교 창업생태계의 위상과 역할은?

판교는 국내 대표 IT 기업과 스타트업, 우수한 인재, 투자사가 모여있는 대표적인 IT·첨단산업 클러스터이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판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판교는 강남과의 *우수한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탄탄한 *인프라 지원*이 결합되면서, 이제는 전국 지역 창업생태계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벤처·스타트업 허브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예비창업자가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판교 창업생태계의 해결방안은?

예비창업자가 진입 단계에서 겪는 가장 큰 장벽은 *자금 조달과 핵심 인재 영입*이다. 특히 투자 시장의 자금이 이른바 ‘검증된 창업자(연쇄 창업자 또는 빅테크 출신 개발·연구진)’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규 창업자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균형을 잡고 *과감한 도전을 격려*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판교 창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한 혁신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자본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생태계 수혜로 성장한 *선배 창업가가 엔젤투자자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판교 창업생태계의 미래비전은?

판교는 제1,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통해 구축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집적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계기로 경기중기청은 경기지역 벤처·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기술·자본·인재·고객이 한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생태계”

KT | **권혜진 실장**



대기업과 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창업기업의 특징은?

첫째, *사업화 관점에 대한이해*이다. 기술 검증만으로는 협업이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 적용 시 필요한 운영, 보안 이슈, 비용 구조, 고객 지원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대기업은 기술 자체도 중시하지만 사업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우리 기술이 뛰어나다”도 좋지만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빠른 실행력*이다. PoC 과정에서 고객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고 수정하는 창업기업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들은 가능하면 *초기부터 유료 고객 확보 경험*을 축적하며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PoC를 수행해야 한다. 결국 대기업은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과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협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판교 창업생태계의 변화된 모습과 KT의 특징은?

앞으로 판교는 *글로벌 AI 혁신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판교가 인터넷·게임 산업 중심의 성장 거점이었다면, 앞으로는 AI, 로봇, 양자기술 등 *미래 기술 산업의 융합 거점*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KT는 *사업 검증의 플랫폼으로 창업기업과 협업*하며, 고객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PoC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PoC를 넘어 실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도 KT는 판교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기창경과 매년 진행하는 ‘KT Collaboration’ 프로그램에서 만난 판교 창업기업의 강점은?

판교 스타트업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력과 사업화 감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많다. 하지만 판교 스타트업들은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비교적 깊다. 이는 판교가 다양한 *ICT 기업과 VC,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이 밀집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제품 중심 사고를 넘어 *사업 중심 사고*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판교의 경쟁력은 특정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본·인재·고객이 한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생태계*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판교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기획하다

판교 창업생태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판교 창업생태계의 강점과 기회요인, 비전과 목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판교의 창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SOAR(Strengths–Opportunities–Aspirations–Results) 기법을 활용한 미래워크숍을 통해 판교 창업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좌측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은재 동문파트너스 대표
김은혜 우아한형제들 파트장
강규식 (주)이녹스 상무
문형욱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이미송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



Strength-Opportunity

글로벌 기술 소싱 및 오픈이노베이션의 관문

판교 미래워크숍에서는 판교 창업생태계의 강점에 대해 ***창업 인프라와 지원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단계별 성장지원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강점으로 도출하였다. 판교에는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과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공존하는 공간이기에 창업경험과 도전정신을 의미하는 ***'스타트업 스피릿'***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도출한 기회 요인은 판교가 ***글로벌 기술 소싱 및 오픈이노베이션의 관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술과 해외 기업을 연결하는 접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 창업생태계의 실증 표준 설계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판교에서 검증된 실증 모델을 지역 산업거점으로 확산해 전국 창업생태계의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Vision-Strategy

스타트업 스피릿이 흐르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기회 요인을 토대로 판교의 미래비전을 도출하였다. 먼저 판교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글로벌***이다. 지금도 판교는 해외 기업과 액셀러레이터가 국내 기업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글로벌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사업 파트너를 찾는 해외 기업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의 기술창업기업을 이어주는 ***아시아 기술 소싱의 관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사업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미래 비전을 도출하였다. 또한 판교에는 ***1세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공존***하며 축적해온 창업 경험과 도전정신을 의미하는 ***'스타트업 스피릿'***이 있다. 스타트업 스피릿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음 세대의 창업가에게 전수되어서 판교의 생태계 문화를 만든다.

앞으로 판교는 ***'스타트업 스피릿이 흐르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 창업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 PoC 기반 실증 협력 활성화 및 표준화
- 투자 재원 확충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글로벌 개방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

판교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기획하다



CURRENT

- 창업 공간과 지원기관이 밀집한 창업 인프라 및 단계별 성장지원 체계
- 1세대 선배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창업 문화
- 국내 대표 IT·첨단산업 기업과 기술창업 기반의 집적
- AI·반도체(팹리스)·기후테크로 이어지는 신산업 육성 기반
- 수도권 투자 인프라 근접성과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서의 상징성

Strengths

Opportunities

- 공공과 민간의 서로 다른 관점을 잇는 중간 다리 기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거점 실현
- 실증·협업·투자 검토가 한 공간에서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통한 스타트업 성장 속도 제고
- 선배 창업가와의 인접성을 활용한 사업 실효성 검증 및 브랜딩·소프트 역량 교류 확대
- 대·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부 R&D 센터 아웃소싱 거점으로 활성화
- 민간 주도의 M&A·엑시트 활성화 거점으로 전환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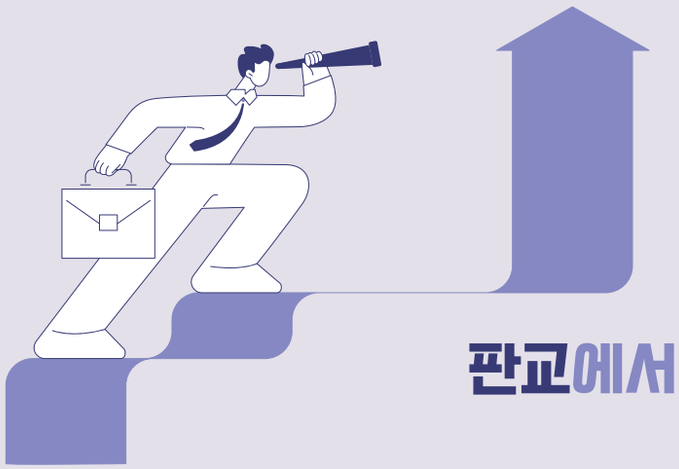
- 미래기술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 판교
- 스타트업 스피릿이 흐르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 대한민국 실리콘밸리의 표준, 판교

핵심가치 글로벌, 혁신, 연결, 스타트업 스피릿, 미래 기술

Strategies

FUTURE

- **PoC 기반 실증 협력 활성화 및 표준화**
  - 민간 주도 PoC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 대·중견기업의 PoC 참여 부담 완화
  - 1세대 선배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행사 정례화
  - 상시 매칭 플랫폼 운영 및 실증 표준 설계
- **투자 재원 확충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판교 창업 투자펀드 조성
  - 선배 기업가의 후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 판교 창업특구 지정을 통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
- **글로벌 개방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경쟁형 배치 프로그램 운영 주체·재원 확보
  - 오픈이노베이션 중심 국제행사 유치 및 국내 대표 행사의 판교 스핀오프 개최
  - 교통·주거 등 정주 인프라 확충



판교에서 스타트업을 한다 = 글로벌 & 스타트업 스피릿

STARTUP ECOSYSTEM REPORT
2026 PANGYO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Vol. 11

판교



2026 PANGYO

창업진흥원 KOREA START UP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